

이재명 후보 전남 ‘골목 경청투어’ 지지자 몰려 ‘인산인해’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화순군 화순읍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기자mjna@

6·3 대선 D-22

“이재명 후보 얼굴 보려고 가게 문도 닫고 왔어요. 동네 책방에서 자서전이 품절돼 인터넷으로 주문해 어제 받아봤습니다.” <관련기사 2·3·5면> 전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는 곳마다 환호와 구름인파를 몰고다니며 호남 지지세를 실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1일 ‘골목골목 경청 투어’에서 전남 화순과 강진·해남·영암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민을 만났다.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12일)을 앞두고 이달초부터 시작한 ‘경청 투어’ 일정을 이날 전남에서 마감하는 등 호남에 각별한 애정을 표실했다. 첫 방문지로 화순을 선택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화순읍 화순교 일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방검북 위로 얇은 회색 카디건을 걸친 간편한 복장으로 주민을 만났다. 이 후보가 탑승한 차량에서 내려자 지지자들은 이 후보를 큰 소리로 호명하기 시작했다. 이 후보는 손 흔들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화답했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이 후보가 예정된 동선에 따라 140m를 이동하는데 40여분이 소요됐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은 사인과 악수, ‘셀피’를 요청을 즉석에서 응했다. 이 후보는 단상에 올라 “오늘은 ‘대동세상’을 꿈꿨던 동학농민운동이 첫 승리를 거뒀던 날”이라며 “화순에서도 모든 공권력이 후보한 열을 동안 아무

화순·강진·해남·영암 유세 현장 르포
140m 이동하는데 40여분 걸려
사인·악수·셀피...하나되는 시간
박지원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

런 폭력사태 없이 주먹밥을 나누며 사는 진정한 공동체를 잠시 느끼지 않았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쉽지 않지만, 오로지 국민만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에서 지역민을 만난 이 후보는 80여km 이동해 오전 11시 30분께 두번째 행선지인 강진을 강진 오감통시장에서 군민을 만났다. 지지자들의 함성과 기념촬영, 사인공세를 쏟아냈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도 “‘12·3 내란사태’ 진압의 첫 번째 날은 6월 3일”이라며 “진정한 민주 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이 그날 시작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이후 참모들과 오감통 먹거리장터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정약용 선생의 첫 유배지인 사의재를 찾아, 문화해설사로부터 사의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어 해남으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만났다. 해남읍 중심가인 해남군 도시재생센터 인근에서 후보가 도착하자 해남 군민들이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이 후보에 건네며, 대선 승리를 응원했다. 이재명 후보 일정에 동행한 박지원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

원은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이라며 “해남·완도·진도군이 전국 득표를 1위를 차지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날 이 후보의 전남지역 순회 유세에서는 이 후보와 부인인 김혜경씨의 저서에 직접 사인을 받으려는 지지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 대표의 방문 소식에 인근 서점에는 이 대표의 자서전이 동나기도 했다. 차연자(여·68·해남군 해남읍)씨는 “이 후보 책을 사려고 했는데 품절됐다”며 “공정한 사람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조미서(여·60·강진군 학산면)·영이(여·62·)씨 자매는 “마침 인터넷으로 주문한 이재명 후보 자서전이 어제 도착했다”며 “미리 도착해 사인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강경희(여·69·영암군 영암읍)씨도 “시골 사람처럼 없는사람들을 배려하고, 열심히 사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좋았다”며 “아이들 주기 위해 직접 사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해남 유세를 마치고 마지막 장소인 영암군 학산면으로 이동했다. 한적한 시골마을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한 때 통진장에 발생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영암 군민들과 만난 뒤 한 미용실에 들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전남을 비롯해 골목골목 경청 투어에서 지역소멸위기 지역을 돌아보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소명도 다시한번 크게 생각하게 됐다”면서 발길을 돌렸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알립니다

광주일보 대통령선거 특별취재단 가동

광주일보사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별취재단을 구성해 광주·전남 선거현장 소식을 온·오프라인으로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유권자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것입니다. 특별취재단이 대선 현장을 방문해 지역민심과 여론 판세 등을 보도하겠습니다. 광주일보 홈페이지를 비롯해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도 실시간 대선 관련 뉴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합니다.

◇ 대선 특별취재단

운영기 정치담당 에디터, 오프라인 정치부 부장, 정병호·김민석 정치부 기자
김지을 사회부장, 유연재·김진아·양재희 사회부 기자
김해나 경제부 기자
나명주 사진부 부국장, 김진수 사진부 차장
설혜경·박연수 멀티미디어부 기자

光州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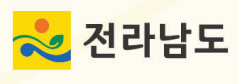
기호 1번 이재명·2번 김문수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제21대 대통령 선거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등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합당 구구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11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 교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에 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기호를 결정할 예정이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의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당시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정당의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을 부여받고 이후 의석수 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만약 의석수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득표수 순

으로 기호 순번이 결정된다. 이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경우 기호 1·2번이 확정된 상태다.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시작된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시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지형 선거공보를 각 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정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은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남도의 맛깔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남도음식거리

맛있는 만남이 있는 행복한 남도음식거리에서
남도의 맛과 멋을 즐겨보세요.

목포 평화광장 맛의 거리	여수 해양공원 해물삼합거리	순천 순천시장 국밥거리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	광양 광양불고기파크·섬진강망덕포구횡집거리	담양 창평국밥거리
곡성 압록참게·은어거리	고흥 장어음식거리	보성 벌교 태백산맥꼬막거리	장흥 바지락·키조개거리	강진 돼지불고기거리·마량미향횡집거리	해남 닭코스요리거리
무안 낙지특화거리	영광 굴비거리	장성 황금장어거리	완도 전복음식거리	신안 섬뽕낙지거리	